**어둠 속에서 우리를 걷게 만드는 것**

**[상상사전] ‘밤길’**

 **차송현**

저녁 8시의 학교는 잠잠했다. 방학인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이 문을 닫아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늘 불이 켜져 있던 도서관마저 며칠 전 확진자가 출입해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학교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깜깜하고 조용한 학교를 돌았다.

**저녁 8시, 학교는 잠잠했다. 방학인 데다 코로나 탓에 대부분 건물이 문을 닫아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늘 불이 켜져 있던 도서관마저 며칠 전 확진자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불이 꺼졌다. 나는 학교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깜깜한 학교를 돌았다.**

사람들이 없어 가로등마저 힘을 잃은 걸까.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게다가 급식소는 대부분보도블록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거의 빛이 닿지 않았다. 양손에 들린 물통과 사료통 때문에 휴대폰 후레쉬를 켤 수도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체육관 위쪽 수풀에 자리한 급식소였다. 미광조차 비치지 않아 사방이 까맸다. 가파르진 않지만 울퉁불퉁하게 경사진 흙길. 발을 헛디딜 게 무서워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캠퍼스를 반 바퀴 넘게 돌아 몸에서 땀이 났고 다리가 흐물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 돌아갈까. 마스크 안에 맺힌 척척한 물방울까지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나는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기척이 느껴졌다. 내 눈앞에, 어둠 속에서 더욱 까만 구멍이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손을 뻗자 아주 따뜻한 털뭉치가 느껴졌다. 고양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보드라운 고양이었다. 고양이는 내가 쓰다듬는 대로 야옹거렸고, 나는 목구멍으로 뜨거운 차를 삼킨 기분이었다. 놀라울 만큼 힘이 차올라서, 나는 씩씩하게 어두운 수풀을 헤치고 배식을 마쳤다.

**몇 군데 켜진 가로등 불빛마저 금방 어둠 속에 빨려 들어버렸다. ‘고양이 급식소’는 더욱 후미진 곳에 있어 거의 빛이 닿지 않았다. 양손에 물통과 사료통을 들고 있어 휴대폰 후레쉬도 켤 수 없었다. 체육관 위쪽 수풀에 있는 급식소는 미광조차 비치지 않았다.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흙길. 헛디딜까 무서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캠퍼스를 반 바퀴 넘게 돌아 몸에서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마스크 안에 맺힌 물방울까지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기척이 느껴졌다. 내 눈앞에, 어둠 속에서 더욱 까만 구멍이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손을 뻗자 아주 따뜻한 털뭉치가 느껴졌다. 고양이다! 고양이는 내가 쓰다듬는 대로 야옹 소리를 내며 응석을 부렸다. 배식을 마친 기분이 상큼했다.**

어두운 밤길을 걷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어둠마저도 걸을 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이라도, 따뜻한 촉감과 정다운 소리가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어두운 밤길에 빛이 있으면 걷기 편하다. 하지만 빛이 없다 하여 걷지 못할 길은 없다. 어둠을 헤치고도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 어둠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시대상황과 개인의 처지가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